

기출 문제

정석가_작자미상	002
오백년 도움지를_길재	004
동동_작자미상	006
만흥_윤선도	012
이화에 월백하고_이조년	026
님이 오마 하거늘_작자미상	028
나모도 바히 돌도_작자미상	032
사미인곡_정철	036
만언사_안조원	046
갑민가_작자미상	050
정선아리랑_작자미상	052
제가야산독서당_최치원	054
야청도의성_양태사	060
보리타작_정약용	062
전가팔곡_이휘일	072
정읍사_작자미상	074
용비어천가_정인지	076
가마귀 검다 하고_작자미상	078
[출처및정답]	082
[해설]	090

윤선도, 「만흥」

[20~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꽃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_____ [B]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_____

㉡낮이 밝을수록 칙칙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짚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랄*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뵈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
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으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으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얗: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랄: 부러워할.

* 삼공: 삼 정승.

* 만승: 천자(天子).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약뚫더라: 약뚫더라.

2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1.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2.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 <보 기> —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현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㉒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㉔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4.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윤선도, 「만흥」	3학년_2007학년도 9월 28,29,30,31,32,33,34 [평가원]	20	①
		21	②
		22	①
		23	③
		24	⑤
		25	④
		26	③
	2학년_2014학년도 6월 A 37,38,39	27	⑤
		28	①
		29	③
	2학년_2017학년도 6월 26,27,28,29	30	①
		31	④
		32	⑤
		33	③
	1학년_2008학년도 6월 13,14,15,16,17,18	34	③
		35	⑤
		36	④
		37	①
		38	①
	3학년_2005학년도 4월 46,47,48,49,50,51	39	⑤
40		④	
41		②	
42		②	
43		②	
44		④	
45		③	
46		①	
3학년_2006학년도 10월 47,48,49,50,51,52	47	③	
	48	⑤	
	49	③	
	50	⑤	
	51	③	
3학년_2014학년도 3월 41,42,43	52	④	
	53	④	
	54	③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55	③	
	56	③	
	57	②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하거늘」	3학년_2015학년도 9월 A 43,44,45 [평가원]	58	⑤
		59	③
		60	②
	2학년_2013학년도 3월 37,38,39	61	①
		62	④
		63	①
	1학년_2013학년도 6월 22,23	64	④
		65	③
	1학년_2017학년도 6월 43,44,45	66	②
		67	⑤
		68	②